

“바이오벤처, 화장품 산업에 관심가져야”

이 정 아 기자 leeah@cmn.co.kr(주간신문 CMN)

올 상반기에도 바이오벤처 기업의 활약이 화장품업계에서 두드러졌다. 신성분 개발, 미국 나스닥 등록, 수출 확대 등 몇몇 업체들이 앞장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때문이다.

신성분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토피에서 바이오벤처가 강세를 보인다. 올해 아토피 관련 시장이 4백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네오팜의 아토팜, 바이오스펙트럼의 탈스, 콧데의 아토마, 두산 바이오텍BU의 케어닉, 바임 래버러토리즈의 아토스마일, 루디아 바이오테크의 아토카라크림 등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피부의약 전문 바이오벤처인 (주)바임 래버러토리즈(대표 안일호)는 무궁화로 만든 아토피 치료 화장품을 선보여 국내외 화장품 업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초 무궁화 추출물 화장품인 아토스마일은 무궁화 목피에서 추출한 피부노화방지 항산화 물질을 주축으로 총 27종의 천연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바이오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에는 7백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우 가능성 높은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바이오벤처 중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대략 50여개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실제 가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수를 따져보면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CBN바이오텍(대표 백기엽)은 조직배양 산삼 대량 증식에 성공, 본격적인 산삼 양산에 나서 화제가 됐다. 회사측은 생물반응기를 통해 산삼의 대량 증식 체제를 갖추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 제약사와 화장품 업계에 연간 3톤 가량의 건삼을 공급, 1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부의약 전문 바이오벤처인 바이오스펙트럼(대표 박덕훈)

은 천연 유사 여성호르몬을 추출, 고순도로 정제·배합하는데 성공해 최초의 식물성 유사 여성호르몬 에센스를 선보였다. 회사측은 이번에 개발된 식물성 여성호르몬 복합체인 파이트로겐의 생산기술과 제품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바이오벤처들은 여드름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도

신혈을 기울여 성과를 얻고 있다. 피부과 전문병원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바이오벤처들도 많이 늘었다.

기능성 식품 전문업체인 벤트리(대표 이행우)는

신성분 개발, 수출 확대 등 활약상 일부 업체에만 한정 오는 2010년 바이오 화장품 시장 7백46억원 전망 ‘낙관’

천연 해조추출물(VNP)이 함유된 클라젠 화장품을 개발, 메디컬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다. 이달부터 전국 50개 피부과 전문병원에 공급하며 향후 2백여개 병·의원으로 영업을 확대, 내년말까지 약 2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넥스젠(대표 이선교)은 캐나다에 설립한 자회사 가디언이 6개월여에 걸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장외시장(OTCBB) 등록심사를 통과해 미국 나스닥 장외시장(OTCBB)에 상장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화장품 분야에 대한 바이오 업체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활용범위가 다양한 바이오 기술의 특성을 살려 참여하는 업체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 화장품에 대해 환경친화적이며 유전정보를 활용한 신물질 개발 가능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에는 7백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우 가능성 높은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바이오벤처 중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대략 50여개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실제 가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수를 따져보면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긍정적인 시각을 원동력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화장품에 대한 바이오벤처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http://www.cmn.co.kr>